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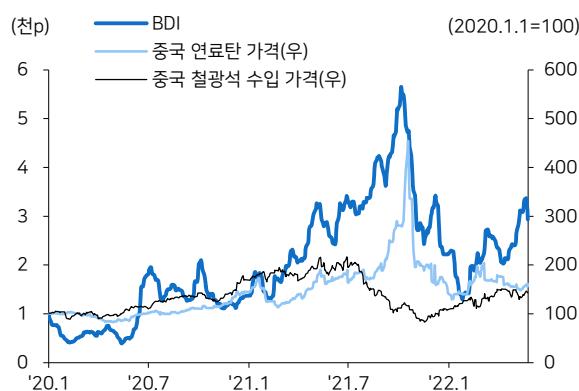
2022. 6. 2 (목)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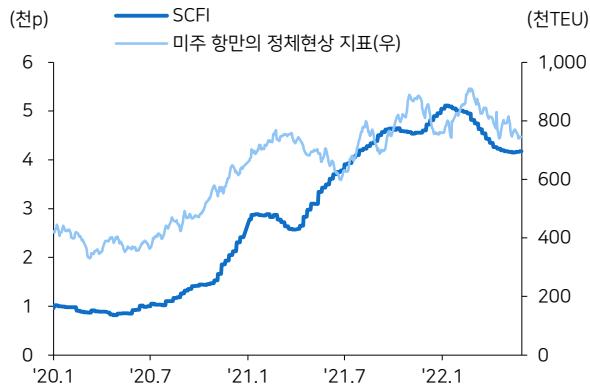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33p(+6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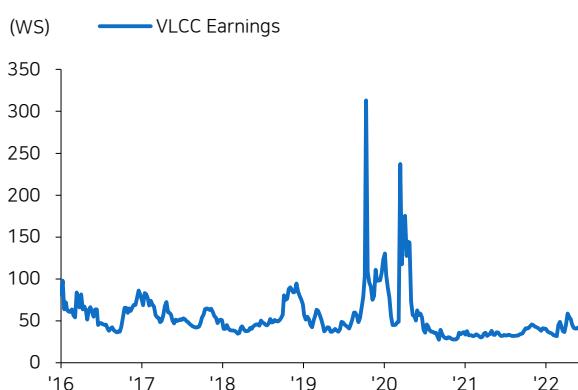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75.4(+12.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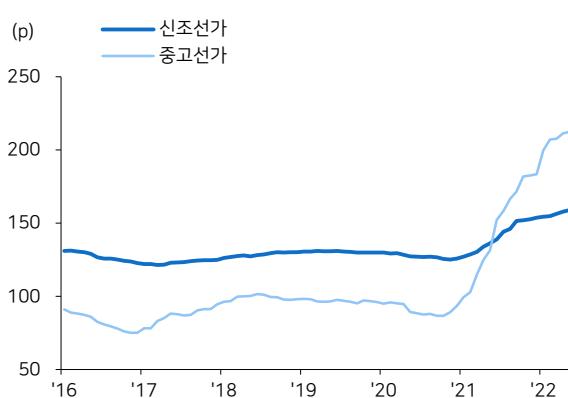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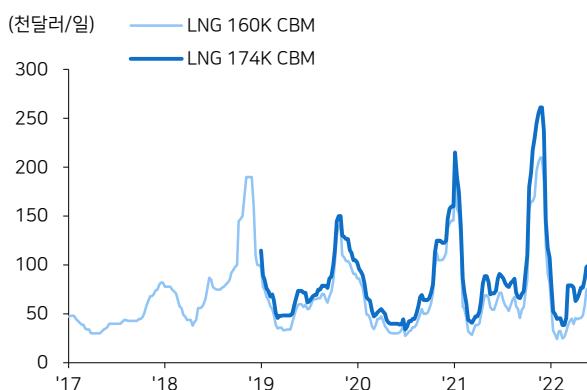
42.3p(+1.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1p(+1.1p WoW)
211.5p(+0.1p WoW)

LNG Spot 운임

76.8p(+2.0p WoW)
99.5p(+1.5p WoW)

항공시장 지표

269.0p(-0.2p DoD)
101.7p(-1.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카타르 곧 LNG선 정식 건조 계약

Qatar Energy가 곧 LNG선을 발주해줄 선주, 국내 조선 빅3 등 관계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도됨. 선가는 오랜 협상 끝에 해결됐으나 용선료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짐. 발주계약을 체결한 선주사는 K3(에이치라인해운, 팬오션, SK해운), Knutsen OAS Shipping, JP Morgan임. 조선 빅3가 각각 5~19척씩 건조할 전망으로 알려짐. 납기는 2025~26년임. (선박뉴스)

OPEC+ 쪼개지나..."러시아 빼고 증산합의 저울질"

OPEC이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서방의 제재와 EU의 원유 부분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 능력이 저하되며 산유량 합의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짐. 또한 OPEC이 러시아의 산유량 감소분을 메울 방안을 아직 정식으로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중동의 일부 산유국은 향후 수개월 내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루블화 대금 거부' 유럽 에너지 기업에 러, "1일부터 가스 공급 중단"

러시아 Gasprom은 루블화 대금 결제를 거부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에너지 기업에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함. 가스 공급 중단은 지난 3월 31일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루블화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덧붙임. (한국일보)

Capesize bulker market turns upward on Pacific fixture activity

Panamax 벌크선 운임은 전주에 이어 하락세인 반면 Capesize 운임은 이틀연속 상승했다고 보도됨. Capesize 5TC는 이틀사이 12.5% 상승한 바 있음. 최대 기여 항로는 중국-서호주 항로로 이틀간 37.7% 상승함. 화요일(31일) Pacbulk Shipping은 호주-중국항로로 170,000톤의 철광석 수송을 12.9달러/톤에 계약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EU ban on Russian oil predicted to drive home post-invasion trade shifts

Gibson Shipbrokers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제재로 향후 6-8개월간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유럽은 원유 및 석화제품을 서아프리카, 중동 및 미국에서 수입할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는 인도로 수출을 확대했는데, 2021년 30,000배럴/일에서 2022년 4~5월간 700,000배럴/일을 수출함. 장거리 수송으로 특히 Aframax 운임에 상승압력을 줄 것으로 보임. (Tradewinds)

상하이 코로나 봉쇄 두달만에 풀려...경제 정상화 시동

상하이가 6월 1일부터 정상회복 도모에 나섰다고 보도됨. 고위험·중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뺀 일반 지역 시민은 자유롭게 주거 단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칙적으로 사무실, 공장, 상점 등을 다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연합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